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월 31일(주일) 제1330호



사진은 니과라가 CCA(Carazo Christian Academy) 학생들.



선교헌금작정

“열방이 소망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

1월 30~31일, 2월 6~7일 '2021년 선교헌금작정' 선교헌금작정서, QR코드,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참여

2021년 선교헌금작정을 한다. '열방이 소망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를 주제로 1월 30일과 31일, 2월 6일과 7일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및 해외비전교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선교헌금작정에는 예배당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더보기란 클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참여할 수 있다.

선교헌금작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규헌금'이나 '봉투헌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금액, 전자서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선교헌금 증액을 원하는 성도는 2000선교본부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 키워드는 '현지와'와 '온라인 플랫폼'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교를 멈추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현지인과 협력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시대에 선교 사역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교훈을 얻었다. 현장 선교사 30%가 코로나19로 임시귀국했고, 대다수 선교사들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양육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선교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여 시도하

고 있다. 온누리교회 선교는 코로나19 긴급구호도 계속 이어간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지구촌 이웃들에게 식료품과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면서 현지 복음화를 위한 사역을 병행할 예정이다<관련기사 8-9면>.

김홍주 목사(2000선교 본부장)는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과 기도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월 15일 기독 OTT 플랫폼 '풍당' 출시

한국 교회와 성도의 건강한 신앙 유지 목적

CGNTV가 2월 15일 기독 OTT 플랫폼 '풍당(Fondant)'을 출시한다.

CGNTV 풍당은 양질의 기독 콘텐츠를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검증된 복음 콘텐츠만 제공해서 이단 콘텐츠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독 OTT 플랫폼 풍당에서는 CGNTV에서 만든 오리지널 콘텐츠뿐만 아니라 각 단체와 기관에서 제작한 영상 콘텐츠들이 한데 모여 있어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신앙성장영역 점검지'를 활용해서 개인별 성장과 콘텐츠 소비 패턴을 파악하고, AI가 사용자 성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기도 한다.

'풍당(Fondant)'은 프랑스어로 '흘러넘치다, 빠져들다'는 뜻이다. 물의 파장을 가리키는 우리말 '풍당'과 어울려 온 세상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의: 02-792-0691

< 제직회 >

일시: 2월 7일 2부 예배 후 / 대상: 모든 제직

< 공동의회 >

일시: 2월 7일 3부 예배 후
대상: 18세 이상 세례 교인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안전: 2021년 예산안 보고

새 역사 쓰고 있는 '90일의 기적'

온누리의 '90일의 기적'이 날마다 새 역사를 쓰고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6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CGNTV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예배당 예배로 참여할 수 있다. 성경일독은 매일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거나 '90일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

스트를 시청하면서 성경을 완독하면 된다.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에는 현재까지(1월 28일 기준) 성도 442명이 동참했다. 1월 23일부터는 '90일의 기적 토요새벽기도회'가 시작됐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 '온누리교회 대학청년'에서 생중계된다.

'예배당 예배' 홈페이지, 전화 예약 필수

온누리교회 예배당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주중과 주일예배를 예약할 수 있다. 예배예약시스템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접속할 수 있다. 예배드리기 원하는 캠퍼스와 요일, 시간을 선택하고 예약하면 된다. 미등록교인은 아이스쿨 회원가입을 하면 지급되는 일회용 바코드로 예배예약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전화예약은 화~금요일, 주일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전화예약은 등록교인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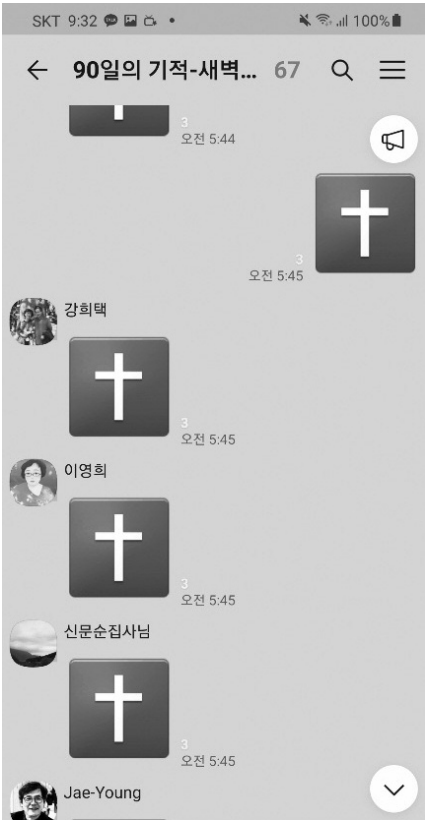
‘90일의 기적’과 함께 90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회복을 부르짖고, 언제 어디서나 말씀 읽고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참가자들의 고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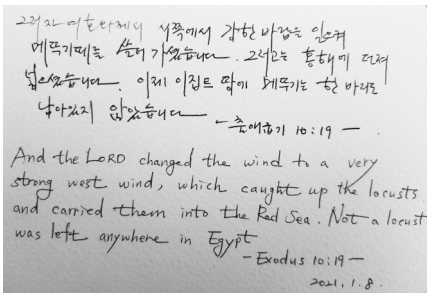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여가 지났다. 온누리 곳곳에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마음과 영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간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오재흠 형제(갈렙청년부)는 잃어버린 소명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서 응답을 받았다.

“저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얼마 전 한 대상자가 소천했는데 제가 장례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대상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서 정민영 선교사님의 ‘대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할 때 선교가 시작된다’는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김순천 집사(북누리공동체)는 나라와 동역자의 회복을 중보기도하고 있다.

“5년 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 중보기도의 강력한 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신장을 아이에게 이식했는데 결과도 좋았고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전도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서 그때처럼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회복이 필요한 나라와 민족, 저의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수료하셨고 한 분은 아직 양육 중인데 두 분 다 오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동반자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 심은하 집사(일산공동체)의 그림묵상(왼쪽), 나라와 동역자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김순천 집사(북누리공동체, 오른쪽).
◀ 정숙영 권사(서빙고공동체)는 “십자가 아이콘으로 출석할 때부터 은혜가 시작된다”고 고백했다.

있습니다.”

정숙영 권사(서빙고공동체)는 교회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온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사건·사고들로 구설수에 오르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흔들기 위한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내고, 반듯하게 나라의 버팀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서 쌓은 기도가 늘어날수록 성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됩니다.”

김정훈 성도(가정사역공동체)는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1년째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가 이제 막 돌이 지나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순장님과 순원들이 함께 새벽기도회 완주하고, 성경일독도 하자며 격려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순원들이 올리는 ‘한 줄 소감’이 주는 은혜도 큼니다.”

심은하 집사(일산공동체)는 화가다. 그림 그리기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답게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면서 묵상한 내용을 날마다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림 찬양인 셈이다.

“하나님이 저를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는데, 달란트를 이용해서 매일 그림으로 찬양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한다고 해서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심은하 집사의 손에는 온종일 붓이 들려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을 읽기도 하

고, 오디오 성경듣기도 하면서 온종일 말씀과 그림을 연관 지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손에 붓이 계속 들려있는데 그것마저도 은혜더라고요 제 그림 큐티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심은하 집사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막막한 광야 앞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다시 서고 싶습니다. 매일 해가 뜨면 새 묵상과 새 그림으로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이 끝나면 새로운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고 싶습니다. 계속 행복한 큐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욱 집사(송파A공동체)는 퇴근길 막히는 차 안에서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이 주는 은혜를 담뭍 누리고 있다.

“저는 퇴근길 차 안에서 ‘90일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으면서 성경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막히는 도로에서 말씀 들으면서 감사와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고된 일로 지친 저에게 퇴근길 차 안에서 듣는 말씀이 생명수 같은 새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정민욱 집사가 퇴근길에 듣는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자 가장 놀란 것은 아내였다.

“그동안 아내가 저에게 성경을 같이 읽자고 몇 번이나 권유했는데 그때마다 시간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는 것은 핑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고 시간과 공간만 정하면 누구든지 성경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성경일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주, 김영선 기자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한 줄 소감’ (1월 21일~27일)

·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갈렙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 서병재 성도(경기A공동체)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상기해 주셨습니다.
/ 백용기 성도(관악금천공동체)

· 내가 처한 환경과 문제의 벽 앞에서 아무리 험난하고 척박할지라도 오늘 담대하고 굳센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는데 미루지 않게 하소서!
/ 이미경(경기A공동체)

· 루트는 ‘최악’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므로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최선’을 다해 새벽기도, 성경통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최상’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 하은진 집사(중종로공동체)

·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고 사람의 판단으로 살아갈 때, 정의의 추구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걸 배웠습니다. 언제나 예민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소서.
/ 홍성주 성도(중종로공동체)

·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의 삶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습니다.
/ 이인순 성도(경기A공동체)

·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모세와 아론을 보냈지만, 그 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그 아들 대에 재앙과 타락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함께했던 사람이 되기보다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 김일국 형제(대전 온누리교회)

·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300명만으로도 미디안을 물리쳤지만, 그 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그 아들 대에 재앙과 타락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한때 함께했던 사람이 되기보다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 김일국 형제(대전 온누리교회)

· 사사시대 같이 모두가 자기 마을대로 행하는 이 세대이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 민연숙 성도(강남D공동체)

· 내 고집을 세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저 옳다고 고집안 부릴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 손은경 권사(북누리공동체)

·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은 두려움에서 비롯한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거대한 방해물인 두려움에 지지 않겠습니다.
/ 황호성 성도(강남D공동체)

· 다윗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 성현정 자매(브릿지33+공동체)

· 겔보기에 큰 복은 우리의 신앙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표적보다 배부름에 집중하기 쉬운 우리의 본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우경 장로(일산공동체)

· 내 중심적으로 합리화시키는 불순종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박희숙 성도(일산공동체)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딱 한 걸음이면 됩니다!”

김정미 전도사, 이예지 자매, 김은주 성도의 용기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생명나눔의 기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김정미 전도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이예지 자매(여호수아청년부), 김은주 성도(서빙고 파워웨이브)가 용기를 내서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했다(왼쪽부터).

무슨 일이든 첫발을 떼기가 가장 힘들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용기를 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헌혈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꼭 필요한 일인 줄 알지만, 막상 용기 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런데 생명나눔의 기적을 계기로 수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큰 용기를 내고 있다.

김정미 전도사(남양주 온누리교회)도 그랬다. 헌혈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됐다. 고민 끝에 용기를 냈다.

“저는 혈관이 좁아서 병원에서 피검사 할 때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해요. 주사바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헌혈의 중요함은 알지만 용기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계속 무거웠는데 바로 그때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됐어요. ‘바로 이때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헌혈을 결심한 김정미 전도사가 헌혈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처음하는 헌혈을 잘 준비해서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헌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헌혈의 집에 전화를 했어요. 헌혈하려면 금식하고 가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님이 식사를 잘 하고 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반찬을 네 가지나 더 꺼내먹었어요(웃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피를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헌혈에 동참했어요.”

이예지 자매(여호수아청년부)도 생명나눔의 기적에서 생애 첫 헌혈을 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헌혈의 집을 찾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늘 헌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혈을 결심하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긴장했는지 피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채

혈해주시는 간호사님이 혈관이 수축되어 피가 잘 나오지 않는데 채혈부위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팔의 긴장을 풀어주시는데도 온 정신이 주사바늘에 집중되고 주먹을 쥐어야 하는데 쥐어지지 않았어요.”

이예지 자매는 문득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떠오르면서 지금 잠깐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려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생각났어요.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헌혈하는 것은 최소한의 나눔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 제가 받고 있는 이 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생각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기가 생겨서 헌혈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김은주 성도(서빙고 파워웨이브)도 큰 용기를 냈다. 김은주 성도는 이번이 두 번째 헌혈이다. 17년 전 헌혈을 끝으로 철분 수치가 낮아 헌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 하는 헌혈도 아닌데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두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래도 용기를 냈다.

“정말 오래전에 헌혈하고 철분 수치가 낮아서 그 뒤로는 하지 못했어요.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건강이 걱정되고, 이번에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였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헌혈의 집을 찾아갔어요. 안 되면 응원이라도 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방법이 있었다. 철분 수치가 낮아도 헌혈이 가능한 범위에만 들어가면 성분헌혈(혈액의 일부 성분만 분리해서 채혈하는 방법)을 할 수 있었다.

“안 되겠지 생각하며 별 기대 없이 갔는데 헌혈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뻐요. 성분헌혈은 일반 헌혈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저도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더니 두려움은 온데간데없고 성분헌혈하는 40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다음에는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해서 가족과 함께 헌혈하러 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용기 내서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한 김정미 전도사, 이예지 자매, 김은주 성도가 헌혈을 주저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딱 한 걸음이면 됩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믿음의 발걸음, 생명나눔의 발걸음을 떼어보십시오!”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자 소감

“갑쟁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신 하나님은 소심 겁쟁이 저를 헌혈로 인도하셨습니다. 건강 주셔서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은진 성도

“어떻게 헌혈에 참가했냐는 질문에 ‘교회의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대답하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듯한 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생애 첫 헌혈, 가슴이 벅차고 따뜻합니다.”

/ 오남경 성도

“올해 버킷리스트에 있었던 제 첫 헌혈을 생명나눔의 기적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었

습니다. 건강하게 늘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 김효진 성도

“나의 채움만을 위해 욕심을 부려왔는데 건강의 축복을 모르고 있었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8주 후에 또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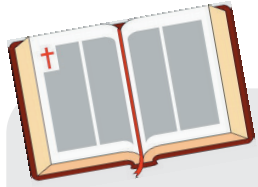
/ 김태영 성도

헌혈, 이것이 궁금합니다

성분헌혈이 무엇인가요?

“혈액을 채혈한 뒤 성분채혈기에 장착된 원심분리기로 혈구 성분과 혈장 성분을 분리해서 필요한 부분만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입니다. 혈소판만 채혈하는 혈소판성분헌혈, 혈장만 채혈하는 혈장성분헌혈, 혈소판과 혈장성분을 채혈하는 혈소판혈장성분헌혈이 있습니다.

*자료출처: 대한적십자사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이 시대 악함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뉴스보다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람과의 만남보다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행 7:2)이십니다. ‘영광’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겁다’는 뜻의 ‘카베드’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무겁다는 단어의 뜻이 ‘영예롭다’, ‘엄위하다’, ‘중요하다’는 뜻으로 발전되면서 결국 영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고, 가장 엄위하신 분이며, 가장 무게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게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가장 무게 있고,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발음합니다. 우리말로 독이 있는 뱀이라는 단어 ‘독사’와 발음이 같습니다. ‘찬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독솔로지’는 찬양학, 찬송학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하나님의 중하심에 대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영광’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과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19편 1절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어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 하심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창조를 통하여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이다”(롬 3:23).

인간은 본능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할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많은 소유,

지식, 명예, 권력 등으로 영광의 무게를 대체하려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영광의 무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훼방하고 숨기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빛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고후 4:4).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이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죽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 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요 17:24).

그 영광을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고, 제자들을 통해 믿는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곧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에 사로잡혔고, 그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고난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자격을 논했습니다. 그 문화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어떤 추천서도 없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일하고 있다. 나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후반부에서는 ‘내가 받은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약의 모세가 받은 직분과 비교합니다. 왜 구약

을 인용하고 비교하며 설명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새로운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능력을 잃어버린 채 과거의 율법에 얽매어서 올바른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세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에 뿌리를 둔 설명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3장과 4장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데 계속 쓰고 있는 모세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7~9절, 11절).

‘더욱더 영광스럽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옛 언약의 전달자로 부름 받은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새 언약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 또한 더욱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증거하는 예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율법을 받습니다. 증거관 두 개를 받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에 난 광채로 인하여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고 백성들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수건을 썼습니다.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문제를 변증하는 것입니다. ‘수건’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모세가 처음 이 수건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나타난 신비로운 광채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광채로 인하여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백성들을 배려해서 수

건으로 가리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수건을 계속 썼습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 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13~15절).

사도 바울이 모세가 수건을 계속 썼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세는 분명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수건을 썼습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갈 때마다 수건을 쓴 이유를 변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 이유를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없어질 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입니다. 어느 한순간 분명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계속 썼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배려해서 수건을 썼는데, 나중에는 없어질 결과에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수건을 썼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수건을 쓴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건을 쓰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수건을 쓰고 나갔다고 보는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나게 했을까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 준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받은 옛 언약,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 주려고 신비한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신비한 현상을 모세에게 동반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없어졌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내 얼굴에 광채가 나면 내가 전하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지만, 광채가 없어지면 또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을까봐 계속 수건을 썼다”고 설명합니다.

〈14면에 계속〉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독교 심리학은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부여한 자유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한 인간의 마음에 실존하는 객관적인 죄를 인정한다. 또한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리는 인간의 원죄를 인정한다.

반면 세속적 심리학은 세속적 신학, 철학, 과학의 가설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 무신론자들은 초자연을 부인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에 대해서도 물질적인 방법으로밖에 연구할 수 없다는 심신일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무신론적 심신일원론에 가장 합당한 심리학의 분과는 행동주의이다. 이것은 눈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만으로 심리를 연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무신론자들은 논리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을 택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제로 무신론자들 중에 행동주의를 취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단순한 기계로 취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신론 심리학자들은 제3세력 심리학에 속해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스

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제2세력), 사회와의 관계는 도외시하고 개인의 내면에만 집중하는 프로이트의 임상심리학(제1세력)에 대한 반동으로 형성된 것이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원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지키기 힘든 도덕률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심리적 죄책감'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나지만 가정, 교회, 국가와 같은 잘못된 사회기관의 악한 문화로 인해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죄에 대하여 '심리적 죄책감'만 느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본주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는 "개인의 악한 행동의 근원이 문화의 영향이라는 주장은 문화를 적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당신이나 나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문화를 형성하는가?"라며 그 주장을 반대한다. 우리 개개인 안에 악으로 향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문화나 사회가 악해질 수 있겠는가?

개인이 가진 죄와 그에 대한 죄책감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각 심리학의 분과들은 인간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무신론적 인본주의에서는 인간 내면의 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은 선하여 완전을 이룰 수 있는데, 사회 제도의 문제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죄책감으로부터의 회복은 인간

내면의 선한 자아와 접촉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간에게 내재한 선한 자아라는 개념은 성경이 의미하는 절대적인 선이 아닌 상대적인 선이다. 대부분의 인간들이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앞서 제기한 롤로 메이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다. 조이스 밀튼은 <정신이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세속적 인본주의 심리학의 선구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제시한 학문적 주장과 그들의 삶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어떻게 현실 적용에 실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한다. 예를 들어 하버드의 티모시 리어리라는 정신과 의사는 환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환각제를 복용하고, 학생들에게 마약을 권장하는 등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며 심지어 없던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들의 치료가 바로 질병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뉴에이지의 경우 소위 브라만(신, 큰 나, 고등한 의식)과 아트만(작은 나)이 하나가 될 때 모든 것을 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큰 깨달음 혹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개개인이 이러한 경지에 이르기 힘들뿐 아니라, 그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이 명상, 요

가, 참선, 최면, 불속을 걷기, 영혼과의 교류, 심지어 마약을 사용하는 것에 이를 때에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포스트모던의 경우 개인의 자유가 최고의 미덕이기 때문에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또한 이들은 '지킬과 하이드'처럼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중인격적 인간을 허용한다. 범죄를 저지른 후에 "그건 나의 다른 자아였어. 지금의 내가 아니야"라고 책임회피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파괴적인 심리학이다.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세속 심리학자들의 달콤한 설명에 넘어가 자신의 죄를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참빛이 나에게 비취을 때 그 빛 가운데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말로 우리를 위로하더라도 그 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죄책감을 부인할 수 없다.

기독교 심리학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실존하는 원죄와 죄로 향하는 속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로 인해 발생한 죄책감과 고통과 질병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와 하나님, 이웃, 자연환경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회복된 개인에게 부여된 도덕적 책임감을 통해 개인과 사회가 개선될 수 있다.

묵상: 지금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크리스천을 위한 성상담

외도, 가족 모두의 삶을 망치는 금지된 선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외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해서 휴대 폰을 몰래 보게 되고, 나를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너집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었는데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정은 낭만의 발코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부부들이 결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다. 신혼의 낭만과 행복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전쟁 같은 격동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직장이나 외부에서 만나는 이성인 색다른 안정감과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자신의 힘든 마음을 다른 이성이 더 수용해주고, 둘만의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감정이 생기면서 자신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배우자보다 가까워지게 된다. 이성적으로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정서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외도로 인한 행복감과 짜릿함을 경험하는 기간은 약 3

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한다. 연애 초기에 경험하는 낭만을 경험하는 시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짧은 쾌락을 위해 굳이 불행한 결말이 뻔한 외도의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지 않을까?

배우자, 특히 아내들은 남편의 변화에 민감하다. 물론 아내들도 외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아내들이 일반적으로는 민감하게 남편의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외도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음에는 부인한다. 외도한 배우자는 '속이는 자'가 된다. 진실하게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 정서적 외도, 성적 외도를 말하지 않는다. 그동안 쌓았던 신뢰감이 점점 더 무너지게 되면서 속이는 자와 탐정의 고통스럽고 비열한 전쟁이 시작된다.

외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이전의 신뢰관계로 회복될 확률은 10~20% 정도라고 한다. 외도로 인해서 신뢰가 깨지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과정이다. 대부분의 외도는 부부관계를 끝내는 것으로 결론이 될 수 없다. 외도를 하면서도 배우자를 사

랑한다고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철저한 배반이고 배신이다. 외도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달구어진 포크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때 그 고통의 무게를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외도는 가족 모두의 삶을 망치는 금지된 선이다.

외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가 서로의 하나 됨을 위해 더욱 집중하자. 부부의 친밀감을 위해 정기적인 데이트와 대화가 필요하다. 숨김없는 감정의 대화들이 부부 사이를 더욱 깊게 만든다.

혹시 다른 이성에게 흐르는 정서적인 친밀감의 흐름이 있다면 멈추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배우자와 나누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멈추라. 하나님께서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책망하셨다(호 10:2). 다른 이성에 대한 마음을 접도록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를 권한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개인적인 사생활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과도한 집착을 하

지 않는 것이 마음과 관계를 지켜갈 수 있기에 다른 이성에게 집중하기보다 부부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배우자의 외도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 외도로 인해서 부부의 친밀감과 부부의 행복, 그리고 믿음으로 세운 가정이 처참하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부부는 다른 이성으로 인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더욱 연합하고 친밀함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둘이서 도저히 문제해결이 안 되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한다.

*** 성문제 관련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들의 사례를 모 집합니다(hha0@onnuri.org).**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 예비학
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코로나19, '일대일 제지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 간증

2020년은 나에게 좌절과 불안의 한 해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나의 모든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하지 못한 채 퇴사를 했고, 갑자기 시작한 시험 준비로 마음이 늘 불안정하고 분주했다.

영혼의 쉼이 있는 화요일 저녁이 기다려졌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일본어 일대일 제지 양육 양육자반(이하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적시고 채우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 나를 살리고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반이 개설된다는 광고를 보고 주저하지 않고 신청했다.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은 지 거의 10년이 넘어서 쉬운 단어들도 가물가물하고 생각이 잘 나지 않았다. 담당 권사님께서 모든 과정이 일본어로 진행되는데 괜찮겠냐고 확인 차 전화하셨을 때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해버렸다. 솔직히 일본어로 일대일 제지양육을 공부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대로 많이 어려웠다. 유창한 일본어로 잘 나누고 싶고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일본어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나오지



이상은 성도(김포공동체)가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반을 듣고 “온유한 양육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않았다. 창피한 생각도 들었다. 그래도 목사님과 조장님, 담당 권사님께서 응원과 격려, 도와주신 덕분에 한 주 한 주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사역 중인 나문채 선교사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 일대일 제지양육은 양육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

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이 선교를 위한 것임을 가슴에 새겼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반이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기도한다.

코로나19 때문인지 작년 한 해는 더 지치고 외로웠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

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지칠 대로 지쳐 너털너털했다. 순장으로 섬기면서 순원들을 잘 돌보고자 했는데 나 역시 영적 돌봄이 너무 필요했다.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반 조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따뜻한 돌봄을 받는 것 같았다. 그동안 많은 자매들을 양육하면서 한 영혼에게 집중하기 위해 한 번도 동시에 일대일 제지양육을 하지 않았다는 조장님의 이야기에 큰 도전을 받았다. 내가 집중적인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큰 힘을 얻었던 것처럼 나 역시 한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집중적으로 돌보는 양육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에서 양육자의 자세와 태도를 배웠다. 동반자에게 지식도 전달해야겠지만, 양육자의 삶의 모습이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해야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야 한다. 또한 동반자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어떤 동반자를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동반자와의 만남을 기도로 준비할 것이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양육자로 쓰임 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한다.

/ 이상은 성도(김포공동체)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바이블아카데미 CDC 수료 간증

대학청년부 바이블아카데미 CDC 과정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다음 세대, 교회, 공동체를 위한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데 그 귀한 자리에 나라는 부족한 사람을 예비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29년 동안 믿음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전의 믿음은 삶에서 비롯된 지식이었고, 스스로 하는 행위적인 신앙이었으며, 자기 확신에 불과했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위탁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고, 부르심이 소중하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2018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모 기업 전략기획부서에 어렵게 입사했다. 입사과정에서 부장님이 경영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를 뽑으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다. 도리어 열심히 성과를 낸 나 자신이 부장당하는 기분이 들어 자존심이 상했다. 또 한편으로는 뜻밖의 사명감으로 어깨가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때는 사명조차 내 힘



이지현 자매(J4U청년부)가 대청 바이블아카데미 CDC 수업을 듣고 있다.

과 내 능력으로 해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점차 부르심이 불평거리가 되었고, 부담스러운 일로 치부했다. 요나가 니느웨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친 것처럼, 나를 되돌아볼 새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2년 동안 관계, 사랑, 성취, 안정 등을 좇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려

고 했다.

쉬울 거라 생각했던 재취업이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설상가상 결혼을 생각하던 남자친구와도 이별하며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제야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과 계획, 욕심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가 되신

다는 사실을 그저 믿겠노라며,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고백을 드렸다. 그렇게 고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천 컨설팅 기업에서 우연히 포지션 제안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다. 전 직장 생활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두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했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조직이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고전 1:25).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내가 설계하는 알은 계획보다 훨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CDC 과정 역시 부르심이라 생각하며 즐겁게 임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부르심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CDC 과정을 준비하는 지체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해지기를 바란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모든 분들에게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 이지현 자매(J4U청년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2021년 온누리 선교 다짐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

“새로운 선교의 장(場)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 키워드 ‘현지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현장 선교사 30%가 임시 귀국했고, 수많은 사역들이 중단됐다. 물론 얻은 것도 많았다. 비대해진 선교의 거품을 빼고 본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현지화’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역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현지인 협력과 이양, 플랫폼 구축, 비대면 역량 개발, 국내 이주민선교 개발, 귀국 선교사 케어, 코로나19 긴급구호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은 2000선교본부장 김홍주 목사와의 일문일답.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 팬데믹이 온누리교회 선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온누리교회 선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교에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봉쇄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역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파송 현지선교사 30% 정도가 임시 귀국했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가져다 준 유익도 있습니다. 비대해진 선교의 거품을 빼고,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지인들에게 이양하거나 협력하는 사역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고, 계속 성장했습니다. 현지인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고 선교사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역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더욱 적극적으로 현지인 리더십을 양성하고,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교 방향이 재편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코로나19 긴급구호 사역을 발 빠르게 전개했습니다. 60여개국 5만5천여 세대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19 긴급구호를 계기로 현지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사역을 시도하면서 더 많은 연합과 협력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2000선교본부와 선교기관들이 힘을 합쳐 선교사들이 영상과 온라인을 사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의 협력과 연합의 장이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지금도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수차례 간담회와 전략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선교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시 귀국한 선교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교회와 선교기관들이 임시 귀국 선교사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귀국 항공료와 숙소, 자가격리 비용 등을 지원했고, Acts29비전빌리지, 상동동, 이태원에 마련된 선교사 숙소 외에도 경기도 시흥, 월곡 등지에 선교사 숙소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선



교사들이 언제든지 한국에 돌아오면 교회가 돌봐준다는 안도감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두란노해외선교회와 Acts29비전빌리지에서는 귀국 선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 선교사들이 현장에 남아 사역을 이어가기도 했는데 그때도 필요한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비대면 사역 및 양육 방법을 함께 고민하면서 창의적인 사역(선교)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를 활용해서 전도를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거부나 입국제한 등으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선교사들은 국내 이주민, 다문화, 난민 사역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습니까?

“우선 지난해에는 긴급구호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선교를 못 하도록 압력을 가하던 이웃들과 관계가 개선되어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선교사들의 간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디오 성경듣기, 페이스북 전도, 온라인 사역 등 창의적인 방법의 사역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나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 개로 나누고, 새로운 리더십들을 세웠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처음엔 선교사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에 적응하고 있고 오히려 다양한 창의적인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대면 선교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선교 방법이 만들어지고 시도되어야 합니다. 비자발급이나 입국제한이 계속된다면 비대면 사역, 현지인 사역, 타 단체에 사역을 이양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선교도 이와 같은 상황에 발맞춰 현지인 선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지 교회와 타 단체와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선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교사들은 국내에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200만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이주민, 다문화 사역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누리M미션과 온누리M센터만으로는 이주민들을 모두 수용하고 포용할 수 없습니다. 온누리교회와 관계 맺고 있는 이주민기관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거나 새로운 사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이주민 분포를 보면 수도권보다 남부지방에 더 많은 이주민들이 생

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 이주민 사역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2000선교본부와 선교기관에서는 선교사들이 이주민들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하여 이주민들의 언어와 문화를 철저히 익히고,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사역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해 온누리교회 선교의 주요 계획을 말씀해주시오

“올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세계가 새로운 선교지’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다양한 사역을 계획 중입니다. 미디어선교에 관심 있는 청년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 각종 영상장비와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서 온라인 양육 또한 활성화할 것입니다. 한 예로 온누리교회 온라인선교단체 SWIM에서는 중동지역 회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직접 가는 아웃리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선교사, 선교지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월쯤에는 성도님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재능기부, 온라인 아웃리치, 양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누리M센터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주민사역을 놓아준 교회에 제공하는 사역도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경기도 안산과 화성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계속 일구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도전은 현지화입니다. 일방적인 선교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지 교회와 협력하는 쌍방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헛불트리니티 신학생, 온누리M미션 성도들이 온누리교회와 협력하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선교가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선교의 장을 열고 계십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과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선교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 선교는 이 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갈 것입니다.”

2021 선교현금작정

세상은 멈춰도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은지 선교사와 주성렬 선교사의 사역과 고백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멈췄다. 겉보기에는 선교도 멈춘 것 같았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 선교사가 코로나19를 피해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에도 말이다. 이은지 선교사와 주성렬 선교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은지 선교사는 오디오 성경듣기 모임과 코로나19 긴급구호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했다. 주성렬 선교사는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후각을 잃고 사역이 중단됐지만 멈추지 않고 새로운 섬김을 이어가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은지 선교사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펴바섬에서 사역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역에 제한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더 크게 목도했다. 현지 주민들이 오디오 성경듣기 모임을 통해 스스로 전도하고, 현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이슬람 주민들이 현지 목회자와 교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디오 성경듣기 모임은 지난해 2월부터 FCBH의 지원을 받아 시작했다. 15개 마을 주민들을 13개 그룹으로 나눠서 매주 오디오 성경듣기 모임을 하고 있다.

“성도 대부분이 교회에 오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교통비가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어도 교회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오디오 성경듣기 모임을 했더니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마을은 8명이 모였는데 6명은 평소 교회에 오지 않던 분들입니다. 현지 목사님도 찾아가는 교회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은지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가 마을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현지 성도들 스스로 오디오 성경듣기 모임을 이어갔다.

“모처럼 심방을 갔더니 성도님들이 질문을 쏟아 냈습니다. 오디오로 직접 성경을 들으니까 궁금한 게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갈급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실제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 오디오 성경듣기 모임도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다.

“본섬은 기독교, 펴바섬은 이슬람 지역입니다. 정치적, 종교적인 문제로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부에서 펴바섬 지역을 갑자기 봉쇄해버렸습니다. 군인이 투입되었고 사상자가 나왔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펴바섬 지역 봉쇄령이 해제되면서 다시 오디오 성경듣기 모임을 시작했다. 한 마을에서는 20명이 넘게 모이던 모임에 5명만 나왔다. 성도들이 이슬람의 폭동이 두려워서 본토로 돌아간 것이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남은 5명 중에서 3명이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알고 보니 펴바섬 지역 봉쇄 기간에도 성도님들끼리 오디오 성경듣기 모임을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펴바섬 오디오 성경듣기(왼쪽),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세례식(오른쪽).



주민들을 초청하셨더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은지 선교사의 동역자 파스칼 목사는 코로나19 긴급구호를 하면서 20년 만에 이슬람 주민들에게 환대를 받았다.

“펴바섬 기독교 인구는 전부 본섬 출신입니다. 펴바섬 교회는 그들을 대상으로만 사역합니다. 이슬람 주민들과는 거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게 해를 당해서 본토로 돌아가는 목회자들도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지원한 코로나19 긴급구호가 펴바섬에서도 진행됐다. 파스칼 목사가 거주하는 마을도 대상이었다.

“지역주민 2천 명에게 구호품을 나눠줬습니다. 파스칼 목사님 지역 차례가 됐는데 불안해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주는 구호품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 떠돌았고, 파스칼 목사님의 선임이 현지인들에게 독침을 맞은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고 기도하면서 파스칼 목사님이 사역하는 마을에도 구호품을 나눠줬습니다. 주민들이 한 명도 안 오거나 해코지를 당하면 어쩌나 우려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모든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파스칼 목사의 사모가 이웃들에게 받았으면서 도넛 한 통을 꺼냈다. 파스칼 목사는 “이곳에서 사역한 20년 동안 이슬람 이웃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은 게 처음”이라며 감격했다.

“코로나19 긴급구호를 통해서 교회와 펴바섬 이슬람 주민들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펴바섬에서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

들께서도 기도해주시시오.”

코로나가 준 후유증과 새로운 섬김

주성렬 선교사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면서 현지 교회의 재정자립을 돕고 있다.

“선교사들이 떠난 후에도 가정 교회와 현지 교회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업을 시도해봤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떡갈비를 패티로 만든 토스트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시도했습니다. 이곳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가 300달러인데 500달러 정도의 이익을 남길 거로 예상하고 있었습니 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즉각 격리를 시작했다. 2000선교본부와 SEED 선교회에서 주성렬 선교사에게 귀국을 권면했다. 하지만 주성렬 선교사는 우즈베키스탄에 남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교회를 이사해서 신경 쓸 일이 아주 많고, 6월에 개원하는 국립아동병원과 밀알심장재단을 통해서 매년 어린이 50명의 심장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지 문화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성렬 선교사는 우즈베키스탄에 남아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성도들과는 온오프라인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주성렬 선교사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가정 교회 한 형제에게 감염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다가 발열

과 근육통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장 검사를 받을 수 없어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말라리아 치료제, 아연, 설사약을 복용했습니다. 감사하게도 1~2일 만에 근육통과 발열 증세가 완화되었고, 3~4일 후에는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후각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 니다.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그만한 것도 천만다행이었다. 주성렬 선교사의 후각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예후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상한 두부를 먹었는데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평소 건강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하게 코로나19 국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몸과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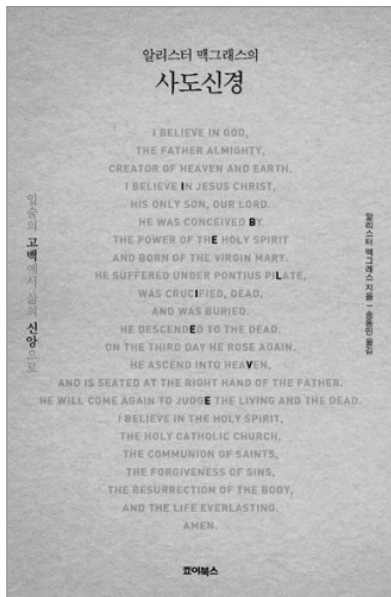
요즘 주성렬 선교사는 전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현지 선교사들과 ‘하나손’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나손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으로, 매일 회비를 걷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교회와 현지 교회를 돕는 모임이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어린이 심장 수술 지원과 토스트 테이크아웃 전문점도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주성렬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의 힘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다고 했다.

“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해봐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저희를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목사

신조, 올바른 신앙고백



《알리스터 맥그래스의 사도신경》
알리스터 맥그래스 저 | 죠이북스 12,000원

사도신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두 가지 느낌이 있다. 첫째, ‘익숙함’이다. 어린 시절 필자의 기억으로는 교회학교에서 가장 먼저 암송하도록 교육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사도신경이다. 둘째, ‘낯설’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도신경은 매우 익숙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낯선 느낌을 지을

수 없다. 사도신경이 가진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간과한 채 외우는 데만 신경썼기 때문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닌 신앙 고백이다. 무엇보다 교회의 ‘공적 고백(Public Confession)’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갖는 무게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서는 사도신경의 구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본서의 원제는 ‘I believe(나는 믿습니다)’이다. 아마도 라틴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인 “Credo in Deum(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교회 역사에서 많은 교리적 논쟁과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신조’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전통의 신조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이다. 저자는 신조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 언급한다. 첫째, 기독교 신앙을 간결하게 요약하기 위함이다. 둘째, 부적절하거나 온전치 못한 형태의 기독교를 분별하고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 공동체에 속하고 하나의 신앙을 공유하고 표현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따라 크게 다

섯 단락으로 구분된다. 1장에서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다룬다. 믿는 행위, 신앙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저자의 견해가 아닌 성경을 인용하며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어서 성부 하나님(2장), 성자 하나님(3-5장), 성령 하나님(5장)에 대해 설명한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균형 잡힌 성경적 의미에 대하여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는 2~5장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본문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6장에서는 교회, 죄의 용서, 부활과 영생에 대해 설명한다. 6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신앙생활의 본질과 같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익숙한 만큼 그 의미를 생생하게 붙들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저자는 교회란 어떠한 공동체인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부활과 영생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서의 독특한 특징이자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는 단순히 개념 설명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도신경의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각 부분의 개념을 정리해

주면서, 동시에 삶 속에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다룬다. 또한 각자 배우고 삶에 적용한 부분을 소그룹 모임에서 나눌 수 있도록 ‘나눔을 위한 질문’까지 제공하고 있다. 아마 신조가 교리에 머물지 않고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저자의 의도가 충실하게 반영된 것 아닐까 생각한다.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신조를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것,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도신경 또한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거짓 교리와 이단이 득세하며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통일되고, 바른 신앙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신앙 선배들의 정신과 노력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어쩌면 각종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이 심각한 영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신경은 더욱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올바른 신앙고백이 필요한 때이다.



정한효 목사
(Pole2대학부)

동방기독교 역사

중앙아시아 동방기독교의 1+1 전략

동방기독교는 중앙아시아에서 1,500년 이상 소수자였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동방기독교는 늘 진취적이었다. 그들은 두 가지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나는 그들의 전략을 ‘1+1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다. 하나는 ‘학교+수도원’ 전략이다. 중앙아시아 동방기독교는 학교와 수도원을 결합해서 삶과 신앙을 동시에 가르치고 배웠다. 또 다른 하나는 ‘다민족+다언어’ 전략이다. 중앙아시아는 민족도 언어도 다양하다. 중앙아시아 동방기독교는 복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족도 따지지 않았고, 다양한 언어를 동시에 사용했다.

동방기독교의 전파에는 발달한 학교제도가 뒷바탕이었다. 동방기독교인들은 학교를 통해서 종교적 지식을 전수 및 전파할 수 있었다. 동방기독교의 학교제도는 이미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지방에서 상당히 정비되어 있었다. 학교는 수도원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 교사들의 대부분이 수도원에 소속된 사제들이었다. 학생들은 5~6명이 한 방에 기숙하며 공부하기도 했다. 동방기독교의 교회는 학교이자 수도원이었던 셈이다.

9세기경 쓰인 <수도원의 역사>라는 글에서 당시 수도원 생활에 대해 보여준다. 이라크 모술 동쪽의 베트 아베 수도원은 교회와 그 부속된 부엌, 사무실, 회의실, 도서관, 객사 같은 시설로 이루어졌다. 운영자금은 부유한 성도의 기부로 충당했다. 두 부류 수도사가 있는데 외딴 곳에 떨어져 수행하는 은둔자와 수도원에 마련된 독방이나 기숙사에 사는 수사들로 구분됐다고 한다. 동방기독교의 수도원은 10세기 사마르칸트 부근 우르구트에서 이슬람 역사가 이븐 하우칼에 의해 목격되기도 했다. 사마르칸트 인근에서는 동방기독교와 수도원이 번성했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고고학 출토물이 발견되었다. 동방기독교의 십자가와 신약의 몇 장면이 새겨진 시리아제 청동항로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 그 부근에서 시리아어로 쓰인 암각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수도원 형태의 교회는 사제와 같은 사역자를 철저하게 훈련하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을 것이다.

학교와 수도원이 결합된 동방기독교의 교회는 중앙아시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던 동방기독교 성도들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식과 신앙심을 부여해 주었다. 또한

동방기독교인들이 강한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갖게 했을 것이다. 오늘날 선교에서도 이런 공동체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동방기독교의 흔적에는 시리아어(중동계), 투르크어(시베리아계), 소그드어(이란계)가 혼합된 경우가 많다. 한 비문에 시리아어와 투르크어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가 다르기도 하다. 당시 지역 동방기독교인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었음과 주요 구성원들을 보여주는 흔적들이다.

원래 동방기독교에서는 시리아어가 예배와 독경에 사용되는 언어였다. 따라서 초기에는 시리아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동방기독교가 중앙아시아로 전파되며 실크로드를 오가던 소그드인(국제상인)들이 개종하였고, 그들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됐다. 소그드인들은 상인이자 선교사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9세기 이후로는 북방계 유목민인 투르크인들이 중앙아시아로 대거 이주했다. 소그드인들은 투르크인들의 민족과 문화에 흡수되었다.

/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미래

우리의 미래는
시작으로 달려가는
열망의 여정
시작의 원점은
동경 안에 새겨진
환상적 고향

피고 지는 행로 위
밀고 밀리는 무대에서
무수한 탈을 쓰고
무도회를 열어 가리

미래는 고향으로 가는 길
꿈꾸던 곳에 이르게 되리
어찌 기쁜 놀이만 있으랴
피 흘리는 게임도 있지
눈물이 어찌 다 슬프랴
노래가 어찌 다 기쁘랴



TIM 2021 화상전략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TIM 2021 화상전략포럼 개최

현지인 사역자 주도로 전환, 촉진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2021 TIM 화상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1월 27일(수) 구글 Meet에서 진행된 1차 화상전략포럼은 ‘현지인 사역자 주도로 전환/이양촉진’을 주제로 진행됐다. 선교사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화상전략포럼에서는 이석희 선교사가 성경 속 5가지 이양모델과 인도네시아 경험을 소개하고, 배운주 선교사가 몽골 교회 현지화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했다. 두란노 해외선교회는 1997년 브리야트족

입양을 시작으로 몽골 선교를 시작해서 생명의문교회, 생명의씨앗교회, 주님의교회를 현지인에게 이양한 모범사례를 가지고 있다. 배운주 선교사는 “처음부터 자립 자치 자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이양과 현지인 양육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손충성 선교사(터키)는 “이슬람에서는 모교회를 중심으로 현지인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이양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연진 선교사(인도)는 “인도에서는 현지

인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을 바꿔가며 후원을 받는다”면서 “재정에 대한 부담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창규 선교사(러시아)는 “잘 성장하던 청년부가 코로나19로 인원이 줄었지만 정말 훈련된 사람만 남았다”면서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정 중심 교회를 세우면 이양이 필요없다”, “처음부터 현지인 주도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진행하면 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오는 2월 17일에는 ‘소그룹 제자 훈련/가정중심사역’을 주제로 2차 화상전략포럼이 열린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두란노어머니학교 상반기 개설 신청

2021년 상반기 두란노어머니학교 개설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 교회와 단체가 대상이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관공서와 기업, 다문화센터, 교도소 등지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개설을 희망하는 교회와 단체는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2182-9114

차세대 새친구 온라인 등록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온라인으로 새친구 등록을 받고 있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에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를 작성하면 된다.

차세대 온라인 가족카드에 온라인(https://forms.gle/khhe9wSjKyDCHvRp8)이나 QR 코드로 접속해서 소속 캠퍼스, 학생 정보, 대표 보호자 정보,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입력하면 된다. 문의: 02-3215-3521



온라인 온비아 갈라디아서 수강생 모집 월 오전/저녁, 목 저녁, 토 오전, 일 저녁반

온비아 갈라디아서 월요일 오전반과 저녁반, 목요일 저녁반, 토요일 오전반, 일요일 저녁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월요일 오전반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월요일 저녁반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반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반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일요일 저녁반 3월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비아 갈라디아서 과정에서는 ‘복음을 위해 바울을 준비시키시다’, ‘복음 변론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다’,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다’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료는 11만5천 원(1년 과정: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문의: 010-3798-7948

/ 홍하영 기자

네팔 크리스천 컨퍼런스 개최

NGO 더멋진세상, 선교 비전 공유

NGO 더멋진세상이 네팔 아시시교회와 나아샹구교회에서 ‘2021 크리스천 컨퍼런스’를 지난 1월 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했다. 2021 크리스천 컨퍼런스에서는 교회 리더십들과 차세대를 초청해서 목회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선교 비전을 공유했다. 2021 크리스천 컨퍼런스는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 측은 “긴급구호와 HIV 감염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한 네팔 사역이 이제는 교회 부흥으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크리스천 컨퍼런스에 참석한 네팔 교회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온라인 사역, 새 지경 아우르는 또 다른 방법”

목회사관학교 케빈 목사 ‘새들백교회 온라인 캠퍼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된 2021년 목회사관학교가 오는 2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26일에는 목회사관학교 두 번째 강의를 이어졌다. ‘새들백교회 온라인 캠퍼스’를 주제로 케빈 리(한국명 이재환) 목사가 강의했다. 케빈 목사는 새들백교회 온라인 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케빈 목사는 “온라인 사역은 오프라인 사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새 지경을 아우르는 또 다른 방법”이라며 “온누리교회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더 많이 함으로써 교회의 비전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변동코이노니아에서 만든 제품 사주세요”

명함, 각종 봉투, 근무복 등 제작 및 판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변동코이노니아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명함, 각종 봉투, 조끼, 근무복, 달력, 연하장, 스티커, 포스트잇 등이다. 지체장애인들과 발달장애인들이 손수 제작하고 있다. 모든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중증장애인 급여로 사용된다.

정성우 원장(변동코이노니아)은 “코로나19로 변동코이노니아에서 만든 물건의 주문량이 많이 줄었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적극 나서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문의: 02-985-3609

/ 김영선 기자

온누리상담센터, 온라인 상담실 운영

화상(Zoom)또는 전화상담, 구글폼에서 신청

온누리상담센터에서 온라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실은 화상(Zoom)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상담실 이용이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QR 코드로 접속해서 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담신청서에는 이름, 성별,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 경험, 원하는 상담 주제,

가능 요일, 방법(전화 또는 화상) 등을 기입해야 한다. 온라인 상담실은 대면상담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2-793-2997(서빙고)

02-570-7536(양재)



서빙고 신청



양재 신청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할인 이벤트

헌혈증, 인증 사진 제시하면 구입 제품 10% 할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을 응원한다.

오는 4월 3일까지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한 성도들이 헌혈증이나 인증 사진을 제시하면 구입 제품 가

격의 10%를 할인해준다(일부 품목 제외). 두란노서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02-796-2310)나 문자메시지(010-3229-2310), 온라인(www.duranno.com/store/onnuri)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문의: 02-796-2310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십자가, 새롭게 읽기’가 3월 2일 개강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가상철언’에 대한 성경학자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다. 강의는 권해생 교수(국제신학

대학원대학교 신약학)가 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주차별 동영상 게시일로부터 1주 동안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078-3264

■ 꼭 도와야 할 선교 현장



/ 송인선 집사(부천 온누리교회, (사)경기글로벌센터)

이주민들은 비자가 목숨과도 같다. 생존과 직결되는 취업, 거주, 의료 모든 것이 비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주 긴박한 상황에도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K국에서 온 M형제는 유학생으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도 취득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해서 세 살짜리 어린 딸과 1년 4개월째 하루 세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구직활동 기간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J국에서 온 P자매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재혼으로 어린 딸과 함께 한국에 온 P자매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1년 전부터 딸과 단둘이 생활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있다고 안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P자매가 얼마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딸이 올해 대학에 가야 하는데 엄마를 위해 진학을 포기했다. 딸의 마음이 참 고맙고 예뻐지만 P자매의 백혈병 치료비에 기초생활비까지 사회초년생 딸 혼자 감당하는 것이 역부족으로 보인다.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P자매는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라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P국에서 온 A자매는 자녀 없이 결혼 6년

섬김과 전도가 가장 절실한 곳

만에 이혼했다. 이혼 후에 신장이 나빠져서 2년째 신장투석을 주 3회나 받느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아픈 몸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국적취득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A자매의 고향에는 투석을 받을 만한 의료시설이 없다.

N국에서 온 F자매는 15년 전 사업가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왔다. 사업이 잘될 때는 두 아들을 낳고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어려운 고향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받지 못했다. 온 가족이 미등록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남편은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출국 당했고 F자매는 두 아들과 지금까지 미등록자로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자리카지 줄어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찾은 이주민들을 잘 섬기고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이 있는 곳이 섬김과 전도가 가장 절실한 곳이다.

문의: 032-344-1412

홈페이지: www.1412.co.kr

■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조진우 성도(강남A공동체)

아이티라는 나라가 있다. 이곳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종교를 따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며, 지독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청소년들의 유일한 즐거움은 이성 간의 성적인 행위뿐이다. 그래서 미혼모와 고아가 넘쳐난다. 나는 아이티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빈민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드리고 있었다. 재작년 선교사님을 뵈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 한국에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여쭙보았더니 선교사님이 “전도폭발훈련 들으세요.”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전도폭발훈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전도 현장에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제를 전도할 때였다. 그날은 첫 번째 노방전도 날이었다. 노방전도가 끝날 즈음 아내가 처제를 데리고 왔다. 팀장님과 조장님, 내가 함께 처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처제는 모태신앙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다. 그 때도 우리의 말을 경청해주었다. 그리고 “영

크리스천의 정체성

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곧바로 “네”라고 대답했다. 형부랑 언니가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성의를 보이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처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이라는 선언문을 스스로 읽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셔서…”라는 구절에서 갑자기 눈물을 쏟았다. 한동안 흐르는 눈물에 말을 잊지 못했다. 함께 있던 나와 아내, 팀원들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의 눈물을 흘렸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리는 믿음의 불씨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뿐이고,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말이다.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참된 복음과 그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고, 모르는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할 때 크리스천으로서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성도가 전도자임을 자각하고, 담대하게 전도에 나설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 대학청년부 비전집회 ‘New Hope’ 간증



/ 서상연 자매(W청년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

기대함으로 참석한 집회 첫날, 직장생활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신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다. 매번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셨던 장로님의 모습이 인상깊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자기 부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고백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도 언젠가는 나의 일상 속 모든 선택과 순종의 기준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되길 소망한다.

2주 동안 진행된 집회에서 여러 강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었다. 평소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어 더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생각조차 포기해버린 순간들이 스쳐지나갔다. 나의 좁은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삶의 모든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

음을 새삼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주셨던 메시지는 ‘사랑’이었다. 노숙자를 섬기는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한 영혼이 회복된 이야기를 들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사람이 변화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내가 변화된 사실이 떠올랐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필요한 것은 정의로운 마음, 윤리적인 기준이나 도덕이 아니라 ‘사랑의 태도’였다. 그 목사님께서 그것을 “상대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짧막한 메시지가 참으로 강력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만이 답임을 고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환경, 재물, 경험 등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셨다. 매순간 주님 외에 믿을만한 구석, 우상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려는 연약한 나에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다. 예수님께 온마음을 드리는 2021년이 되길 소망한다.

■ 대학청년부 CDC 수료 간증



/ 박지은 자매(갈렙청년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대학청년부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 과정을 수강하면서 무감각했던 나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강의와 매일의 신앙훈련 덕분이었다.

당시 나는 회사와 사회생활이라는 세상의 기준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다 보니 믿음이 만발치에 있었다. 자책, 불안, 우울함이 나를 옥죄고 놓아주지 않았다. CDC 강의를 신청하는 순간에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첫 강의 첫 문단부터 마음에 감동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CDC 과정이 나의 뭉개진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돌보심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가 흘러나왔다. 내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손수 새겨 넣으신 그분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주셨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교만함에 휘청거리는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현재까지 나의 모든 순

간을 세심한 계획안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 어둠의 시간도 결국 나의 인생의 ‘한 수’로 쓰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려하셨다.

CDC 강의 회차를 거듭할수록 회개를 통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갈 2:20)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다. 주님께서 일 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는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자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된다는 믿음을 주셨다. 헛된 방향으로 아등바등 할 이유 없이 주님께 내어드리고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활기분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다. 나의 자아는 여전히 곤고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고 계신다. 이제는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 영혼을 맞추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정말 따뜻한 세상

비움의 단상(斷想)



송영범 대표이사
(온누리복지재단,
양재공동체)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그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던 차에 지난해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사회복지 일선에서 섬길 수 있어 정말 감사했고 설렘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 이웃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섬길 수 있다는 설렘이 가장 컸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을 만났다. 경기침체, 감염확산 방지 등으로 복지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참 많았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소외계층들이 더 힘들거라는 염려에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찾아와 다양한 지원과 물품을 후원했다. 한 성도님은 임직자스쿨에서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인 ‘변동코이노니아’를 알게 되고, 변동코이노니아에 자신의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함, 각종 봉투 및 서식지 그리고 직원 근무복 등의 주문 제작을 지속적으로 의뢰하여 주고 계신다. 코로나19로 변동코이노니아의 제품 주문량이 많이 줄었는데 성도님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섬김을 보면서 정말 따뜻한 세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누리복지재단 직원들의 노력도 빛을 발했다. 코로나19가 노인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인 ‘양지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 모든 직원이 철저된 생활을 하면서 혹시 모를 감염을 철저히 예방하였다. 한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딸과 아름다운

별거를 했다. 외부 업무가 많은 딸에게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 하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 집중했다.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쓰러진 어르신의 목숨을 구한 사례가 있었다.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반찬을 코로나19 상황이라 대면하지 않고 문 앞에 반찬만 두고 오는데, 그날따라 집안에서는 어르신 기적조차 없어서, 담당 사회복지사는 바로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어르신의 위험을 감지한 사회복지사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과감하게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어르신이 쓰러져 있었다. 이미 오랜 시간 방치되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었는데 사회복지사의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담당 사회복지사의 관심이 한 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지난해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였다. 컴퓨터와 배움터가 혼재되어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컴퓨터는 컴퓨터담게, 공부와 훈련은 별도의 공간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명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군포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교사, 직업 교육 등으로 섬겨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동역을 기대한다.

올해는 장애인보호작업시설 변동코이노니아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시설 노후로 장애인들이 활동하기에는 안전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어 공간을 옮기는 게 가장 좋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 30여 명의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이 꿈을 펼치고 자랄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확보가 꼭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



임현숙 권사
(양천공동체)

“근데 있잖아. 다 정리하고 나니 너무 좋아. 이렇게도 살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는 거 힘들었나봐.” 암 투병 중인 사랑하는 권사님이 주님께로 갈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살림을 정리하셨노라며 주신 전화통화 내용이다. 통증으로 힘든 중에도 정리하며 고생하셨을 권사님의 모습이 그려져 한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권사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같이 내 마음에 남아 결단하기를 재촉했다.

이제 내 나이 60대 중반. 살아온 날보다 주님께로 갈 날이 더 가깝고, 채움보다 비움이 어울리는 나이다. 옷장과 이불장, 부엌가구, 책장을 열어보니 모두 만석이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정리하자 마음을 다잡고 하나하나 둘러보니 모든 물건이 아름다운 추억이 묻어 있다고, 좀 값이 나가는 것이라고, 아직도 쓸 만하다고 제각기 존재감을 내세우며 아우성치는 소리를 외면하기 쉽지 않았다.

책장 앞에 섰다. 빼곡히 꽂혀있던 책들의 저자와 제목들을 훑어보았다. 삼십년 나와 함께 있던 정든 책들이니 각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듯하나 애써 외면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저서와 최근 3년 이내 구입한 책들만 남기고 “새로운 주인 만나서 좋은 양식이 되어 주라!”고 기도하며 헌 책방으로 보냈다.

그 다음은 옷장이었다. 수시로 정리했기에 오래된 옷은 없고 다만 자주 입지 않은 옷들이 눈에 들어온다. 한참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이 옷을 나보다 즐겨 입으실 분들이 떠오른다. 좀 아깝지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때

드리자’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다음엔 이불장, 부엌가구, 신발장까지 마무리 되어갈 즈음 포르르 굴러 나와 한마디 항의하는 놈이 있다. “저는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에서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어찌 저를...”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순간 내 동공이 흔들리고 약해짐이 느껴져서 냉정을 되찾았다. “이놈아, 10년이 눈 깜박할 사이에 지나는데 눈 10번 깜박이면 너는 100년 묵은 골동품이야!”라며 달랬다. 눈물 없는 보낼 수 없는 그들을 보내고 돌아서서 거실을 봤는데 한가운데 TV가 보인다. “너는 정리 1순위야!”라고 말하니 이놈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한다. “나는 네 하늘같은 남편님의 제일 친한 친구야!”라고 우리 집 물건들은 말도 잘한다.

이렇게 몇 날 며칠동안 갖가지 물건들을 버리고 비우고 정리하니 만석이던 집안 곳곳이 여유로워지고, 비워진 공간에 맑은 기운이 돌아 영혼까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고 집콕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다. 전에는 자유인이라서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아 집안 정리할 시간이 없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나의 사명의 자리를 확인해보니 가정이다. 있어야 할 것들이 제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라 했다. 그렇다면 없어도 되는 것들이 여기저기 쌓여있다면 ‘부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든 물건들을 애써 부정하다 여기며 집박으로 쫓아 버렸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들어지 않고 모자란 듯 비우며 살기로 마음을 여린다.

코로나19 시대 권사님을 통해 집안정리를 결심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과 기쁨의 특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집안을 정리하면서 느낀 단상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함으로 올린다.

신앙에세이

기적의 90일



허원희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익숙한 알람소리에 눈을 뜬다. 반사적으로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더니 부스스한 얼굴에 생기가 돈다. 지난 밤 자란 수면을 깨갓이 도려내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나간다. 걸리는 시간은 10분. 차에 시동을 걸면서 작게 읊조리듯 기도한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해 살게 하소서.” 교회까지 가는 동안 몽롱했던 정신이 돌아온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 갈 수 없지만 나는 새벽예배 스태프라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얻어 매일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 익숙한 목사님들의 찬양, 담임목사님의 간

결하면서도 영성 깊은 설교를 들으면 기도하기 딱 좋은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감성을 갖게 된다. 그때부터 진짜 새벽기도가 시작된다.

어둠 속에서 무릎 꿇고 하는 새벽기도는 나에게 최상의 시간이다.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잠음도 없다.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주님과 과만 함께 있다. 예전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고민도 하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끼집어내기 위해 “주여~”하며 소리도 많이 질렀다. 그런데 요새는 눈만 감으면 뭔가 하늘과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기도의 원칙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몇 마디 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물폭탄 품은 먹구름처럼 나의 위에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눈을 감은 영적인 세계에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떠오르기도 하고, 몸서리치게 느껴졌던 지난날의 실수와 아찔했던 순간들이 생각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해결되

어 버린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안아주시는 주님의 품안에서 깊은 평안을 느낀다. 어디 그뿐인가! 가슴 벅차오르는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능가하는 생각과 해결책들을 보여주신다. 문제는 그것들을 말로 잘 표현 못하고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나다. 이제껏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돌아본다. 주변에 기도해달라고 아우성치던 그 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내 임의대로 삭감하고 제외시켰던 죄악을 뉘우치며 눈물로 고백한다. 올해부터 꼬박꼬박 기도수첩을 만들어 놓치지 않고 기도하겠다고

무엇보다 기도는 눈을 감아야 한다. 세상이 보이지 않고 주변이 어두워야 기도가 잘 된다. 담임목사님이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말씀하신다”는 어둠의 신학을 말씀하실 때 영적인 클락이 있었다. 그렇다. 밝은 데만 있으면 우리는

늘 생각, 돌아다닐 생각만 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어둡고 짙을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에, 병들어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에, 실패와 좌절로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 없을 때, 주님은 뚜렷하게 말씀하신다. 고난이 축복이요 어둠이 은혜다.

이때까지 <인생훈련>의 저자 레이몬드 에드만 박사의 어록 “주께서 광명 중에 말씀하신 것을 흑암 중에 결코 의심치 말라”를 좌우명 삼아 살아왔는데 그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마 10:27)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새기며 살아야겠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는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이다. 나는 그 축복을 이미 소유하며 기쁨으로 눈을 뜬다. 벌써 해가 뜨고 동창이 밝았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또 다른 축복 ‘성경일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주일강단

〈5면에 이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선택은 어느 쪽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는 일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수건도 일시적으로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수건을 쓰고 있는 문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언약과 더 영광스러운 것이 주어져서 수건이 필요 없는데 수건을 계속 쓰고 있는 모세처럼 모세의 글, 하나님의 옛 언약을 읽을 때 마음에 수건을 덮은 채로 읽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15~16절).

이 시대에도 수건을 쓰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건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잘못된 세계관, 사고체계, 사상 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라는 수건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면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화론에 속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믿습니다. 그러나 기원에 관해서는 오랜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화론이라는 수건이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기간이 짧든 오래되었든 그것이 기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라는 수건을 덮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문자주의로 인하여 수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말자고 했습니

다. 이 시대는 예배당, 예배 처소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은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한 구절이나 한 단어만으로 해석하는 것도 수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수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수건이 많이 덮여져 있으면 무엇인가 희미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17~18절).

사도 바울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옛 언약을 십자가 부활로 성취하시고, 새 언약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자신의 얼굴에서 영광이 사라졌으면 수건을 벗어야 하는데 모세가 계속 수건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불필요한 일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새 언약의 영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엄청난 신적 존재였는데, 모세가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들도 마음에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 있느니라”는 말씀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주어진 복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영광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종노릇하는데서 자유케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는 순간 피조물들이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구속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피조물까지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 현재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성화, 영광스럽게 되는 영화의 구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12절).

사도 바울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올 한해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표어에 나오는 소망은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와 결핍과 문제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했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인지를 아는 사람은 ‘존엄성’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존엄성을 높여줘야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 인지를 깨닫게 해 주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수건을 벗은 마음으로 주의 영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사 자녀들의 간증 그리고 고백

저는 그리 어리지 않은 나이에 선교지로 가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선교지에 가기로 결심하시고 저와 동생에게 동의를 구하셨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괜찮겠느냐고요. 저희는 동의했고, 지금까지 선교지에 오게 된 것이 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맑은 공기, 깔끔한 도시, 별이 빛나는 하늘까지 무엇 하나 익숙한 게 없었지만, 굉장히 설레고 선교지 생활이 기대되었어요. 사실 선교지로 가는 것이 결정됐을 때 걱정을 조금 하긴 했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걱정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살던 집은 좁고 곰팡이가 있었는데 선교지의 집은 깔끔하고 한국 집보다 넓었기 때문에 완전 행복했어요. 그런데 행복할 것 같았던 선교지 생활의 기쁨이 잠깐이었어요. 부모님과 저희 자매가 현지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언어라는 벽에 부딪히고 말았거든요. 동생은 유치원을 다니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나마 편

찮았는데,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니까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난생처음 보는 글자, 눈이 큰 선생님들과 아이들까지. 다행히 선생님과 좋은 아이들의 도움으로 차츰 적응하고 지내게 되었어요. 물론 좋은 아이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 짝으로 붙여주신 아이는 제가 알려주는 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꼬집거나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씀드렸고, 엄마가 사전을 찾아가며 문장을 겨우 만들어서 짝을 바꿔 달라고 선생님께 부탁해서 바뀌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월세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주인이랑 협상해서 월세를 낮추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워낙 고집이 세서 이사하게 되었어요. 이사하려고 집을 다 쉰 날 집주인이 난데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수박을 선물하며 가격을 낮춰줄 테니 이사 가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매우 싼 가격에 좋은(?) 집을 구한 터라 집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정말 이사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집도 넓은 데다 월세도 싸거든요. 저는 학교를 옮기게 되었어요. 언어를 정복한 터라 이제 별문제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겠구나 안심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선생님이 엄청나게 까다롭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셨는지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어요. 시를 외우면 한 글자 틀렸다고 낮은 점수를 주시고, 미술시간에 그림을 그리면 배경이 썰렁하다며 점수를 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는 욕을 달고 사셨어요. 들으면 소름 끼칠 수 있는 욕이랍니다. 현지어로 그 발음을 들으면 자제하는 못 알아들어도 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발음이 꽤 무섭게 들리거든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고, 매일 울면서 전학 가게 해 달라고 졸랐어요. 엄마도 학교를 알아보셨지만, 갈 만한 데가 없어서 매일 기도만 했어요. 편지 쓸 때도 기도제목 중에 빼먹지 않고 썼어요. 제 기도제목들을 보신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 선생님이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 선생님이 학교를 그만두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글을 통해서 그때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선교지에 살면서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느끼는 기도의 힘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선교사 자녀이기에 기도의 힘을 더 느끼고, 그 덕분에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 따라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이 행복합니다. 제가 선교사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윤유(14세, 우즈베키스탄)

* 이 간증은 선교사 자녀 간증집 (마주보다)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2000선교본부 홈페이지(www.2000mission.org)에서 더 많은 선교사 자녀들과 선교사들의 간증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이 행복합니다”



2021년

1월 30-31일, 2월 6-7일

선교헌금 작성

열방이 소망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

선교헌금 작성 방법

1. 현장 작성 (2021년 1월 30-31일, 2월 6-7일):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성서 작성

2. 온라인 작성 (상시 작성 가능):
선교헌금작성 QR코드



3. 전화 작성 (상시 작성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선교헌금 작성서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성서를 작성해 주세요.

1. 자동이체 (CMS):
 - ①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②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신규 작성란' 작성
 - ③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성란' 작성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표시

2. 현금봉투 방식:
 - ①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성금액 작성
 - ② 현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선교헌금 문의 02)3215-3616